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노동시장 식으면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6주째 상승
- Bloomberg: 지난 2020년 이래 미 노동생산성 가장 크게 성장
- WSJ: 연준, 금리 중단 연장...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다
- WSJ: 장기 금리 인상이 경제에 좋은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금융]

- The Economist: 미 은행들, 고객에게 더 나은 조건 제시... 경쟁 심화 때문
- Bloomberg: 연준 베팅으로 미 30년물 국채 수익률 10 베이시스 하락
- Bloomberg: 내년 S&P 500 지수, 16% 상승 전망

[휘발유]

- WSJ: 이번 겨울, 휘발유가 더 싸질수 있다

[부동산]

- Bloomberg: 미 주택 시장,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정신 건강 이유로 재택 근무에 기업들 거부... 소송 증가
- WSJ: MBA 과정에서 여성 비중이 크게 늘다
- CNN Business: MS, 잘못된 AI 적용 사례로 비난 받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tinuing Jobless Claims Rise for Sixth Week as Labor Cools

미 노동시장 식으면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6주째 상승

- 연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가 지난 6주간 계속 상승해 실질자가 일자리를 찾기 더 힘들어 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지속적인 실업 청구권수가 10월 21일 끝나는 주에 1백82만건이었다. 연방 노동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 숫자다.
- 10월 28일에 끝나는 주에 신규 주간 실업 청구건수는 21만7천건으로 상승했으며 4주 평균 청구건수도 올랐다.
-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지만 채용 속도가 둔화되고 일부 실업자들의 경우 일 자리를 찾는데 힘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Productivity Grows by Most Since 2020, Labor Costs Decrease

지난 2020년 이래 미 노동생산성 가장 크게 성장

- 3년만에 미 노동생산성이 가장 크게 올라 최근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에 끼치는 여파가 낮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분기에는 연율로 3.6% 였으나 3분기에는 연율 4.7%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청 자료 집계 결과 목요일 밝혀졌다.
- 반면에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생산물 단위당 인건비는 2분기에 3.2% 상승한후 3분기에 0.8% 줄었다.

Bloomberg 기사

WSJ: Fed Extends Pause on Rate Hikes but Keeps Door Open to Moving Higher

연준, 금리 중단 연장...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다

- 요지: 연준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제 성장과 높은 차입 비용의 여파를 검토하고 있다.
- 연준은 어제 수요일 금리 인상 중단을 연장했다.
- 특히 파월 의장은 당분간 금리 인상을 중단할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이번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추가 인상도 배제하지 않았다.
- 그런데 뱅크오브어메리카의 미 금리 전략 책임자인 Mark Cabana는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그가 금리 인상을 원했다면 소비 지출이 인플레이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더 많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했을 것이라고 했다.

WSJ 기사

WSJ: How Higher Rates for Longer Can Be Good News for the Economy

장기 금리 인상이 경제에 좋은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 요지: 경제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며 따라 연준은 경제가 더 탄력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만간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다지 많은 폭으로 인상할 것 같지 않다.
- 이러한 장기 금리 상승 전망은 투자자들에 우려를 주었고 이것이 왜 장기 금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높이 올랐는지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연준 관리들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만약 맞다면 경제는 좋은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준은 금리 인상으 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장기적인 금리 상승이 경제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
- 연준이 어제 회의를 끝낸 후에 연준이 다음달 12월에 금리를 0.25% 올릴 가능성은 5분의 1정도로 선물 시장은 보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The Economist: American banks now offer customers a better deal 미 은행들, 고객에게 더 나은 조건 제시... 경쟁 심화 때문

-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세계 많은 은행은 대출 금리는 높게, 예금 이자율은 적절히 유지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미국에선 미 은행 간의 경쟁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0.1%였던 은행 정기예금 평균 수익률이 현재 2.9%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 은행 간의 경쟁 상황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이자율이 낮은 은행에서 높은 은행으로 옮기면서 발생하고 있다. 분기별 자료에 따르면, 무이자 계좌에 예치된 은행 예금의 비중이 2021년 말 29%에서 현재 20%까지 떨어진 상태다.
- 미국의 4대 은행((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itigroup)는 올해 3분기 평균 예금 이자율이 2.5%라고 보고했으며, 이는 미국 평균 은행 예금 금리 중간값과 동일하다.
- 컨설팅 회사인 Autonomous Research의 Brian Foran는 이런 현상은 기업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큰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Foran은 이제, MMF(money-market fund)가 5%의 이자율을 제공하면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더 심해졌다고 말한다.
- 얼마나 상황이 진행될까? 투자은행인 KBW의 Chris McGratty는 이미 많은 은행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연준이 예상보다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은행의 이자 비용이 지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The Economist 기사

Bloomberg: US 30-Year Yields Fall 10 Basis Points on Fed Bets: Markets Wrap

연준 베팅으로 미 30년물 국채 수익률 10 베이시스 하락

-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추측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 S&P 500 지수는 1% 상승했고 나스닥 100지수는 5일째 상승하고 있다.
- 특히 30년 만기물 국채 상승률은 4.83%로 10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다. 달리는 하락했다.
- 한편 내일 금요일 발표되는 일자리 보고서가 강하게 나타나면 시장은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 불안하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NYT 기사

Bloomberg: Wall Street Sentiment Indicator Shows S&P 500 Gaining 16% Over Next Year

내년 S&P 500 지수, 16% 상승 전망

- 미국 증시가 내년에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의 주식 추천 비중을 집계하는 뱅크오브아메리의 관련 반대 지표(Contrarian Indicator)에 따르면 '매수' 신호에 가까워지고 있다.
- 이 게이지의 현재 상황을 보면 향후 12개월 동안 S&P 500w지수가 15.5%의 가격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내부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말했다.
- 이 은행의 매도 입장 지표인 Sell-Side Indicator는 10월에 1년중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주식 관련해 강세를 나타내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 투자팀은 "월스트리트가 극도로 약세일때는 강세 신호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약세 신호로 작용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반대 지표"라고 주장했다.

Bloomberg 기사

[휘발유]

WSJ: Why You Might Get Cheap Gas for Christmas

이번 겨울, 휘발유가 더 싸질수 있다

- 전형적으로, 외출이 적은 겨울엔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지만, 올해 추가적인 이유가 있다.
- GasBuddy에 따르면, 휘발유 소매가가 지난달 대비 9% 하락해 갤런당 평균 3.41달러를 기록했으며, 도매가 역시 대략 9% 떨어져 갤런당 2.19달러를 찍었다.
- 이는 정유 기업에 휘발유가 이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휘발유를 생산할까?

- 정유 기업들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는 디젤, 제트연료 그리고 난방유 같은 무거운 증류유가 이 기업들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충분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 정유기업들은 연료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고를 수 없다. 원유 한 배럴에는 항상 가벼운 증류유와 무거운 증류유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디젤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한, 정유 기업들이 계속해서 휘발유를 생산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 휘발유 재고는 이미 평소보다 재고가 충분한 상태이다.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10월 27일 이후로 현재 저장된 휘발유는 약 2억2천4백만 배럴로, 같은 시기 최근의 5년 평균보다 약 2% 더 많은 양이다.

WSJ 기사

[부동산]

Bloomberg: The US Housing Market Has Become an Impossible Mess 미 주택 시장,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다

- 미 주택시장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위기에 처해있다. 이유는 저조한 주택 공급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채까지 다양하다.
- 이제 주택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 만약 연준의 고금리가 물가를 잡는 데 성공했다면,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른바 자물쇠 효과(lock-in effect)라고 불리는 현상에 의해 주택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자물쇠 효과란, 주택 소유자들이 저금리 시대에 적용되던 저렴한 모기지 금리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로 주택 거래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 예상보다 강한 경제 상황이 모기지 금리가 높게 유지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대출비용이 조금이라도 저렴해지면, 수요가 증가해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경제적 붕괴는 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자물쇠 효과가 젊은 주택 소유자들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사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시장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인 해결 방안은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는 주택 수요를 강화해 사태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 이에, 공동 투자 플랫폼인 Haus에서 수석 경제학자인 Ralph McLaughlin는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The Fight Over Return-to-Office Is Turning Into a Disability Dispute**
정신 건강 이유로 재택 근무에 기업들 거부... 소송 증가

- 사무실 복귀를 둘러싼 종업원과 고용주간의 갈등이 법적 싸움으로 가고 있다.
- 근로자들은 불안,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 상태를 이유로 재택 근무를 원하는 데 이에 고용주가 거부하자 근로자들의 연방 및 주 법원에 장애 차별을 이유로 고소하는 건이 증가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제기된 고수 건수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6% 상승했다.
- 이같은 정신 건강 장애 관련 고소가 이전의 보복이나 인종 차별 형태의 고소를 추월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WSJ: Top Business Schools Are Enrolling More Women Than Men
MBA 과정에서 여성 비중이 크게 늘다

-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미 상위 5대 비즈니스 스쿨의 풀타임 MBA 재학생 중 절반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치이다.
- MBA 과정에서 여성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비즈니스 스쿨이 최근 몇 년간 여성 지원자를 모집하려 했던 노력이 원인으로 보인다.
- 미국, 캐나다, 유럽의 상위 50개 이상의 학교를 포함한 풀타임 MBA 학생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의 33%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WSJ 기사

CNN Business: How Microsoft is making a mess of the news after replacing staff with AI
MS, 잘못된 AI 적용 사례로 비난 받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디언, CNN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 수익의 일부를 언론사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 지난주 가디언은 호주 시드니의 한 학교에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21세 여성 릴리 제이스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 MSN은 이 기사를 다시 게시했는데,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여성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AI 생성형 설문 조사를 함께 덧붙였다. 그리고 그 답안에 살인, 사고 그리고 자살이란 세 가지 옵션을 나열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
- AI가 만든 이 설문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독자들에게 가장 한심하고 역겨운 조사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 가디언 미디어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Anna Bateson는 AI의 자동 생성 설문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이용해 일으킨 매우 우려스러운 사례라면서,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은 뉴스 기사에 대한 모든 설문 기능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기준금리 향후 추가인상 여부는 노동시장 등 공급이 좌우"

WSJ 진단...파월 "노동공급 확대로 성장과 인플레이 둔화 동시 발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공급 측면에 달려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연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긴축이 기준금리 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

